

##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년 역사의 성과와 가정과교육의 미래 비전과 사명

유태명\* · 양지선\*\* · 주수언\*\*\* · 유난숙\*\*\*\*1)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강사  
\*\*\*동국대학교(경주) 가정교육과 조교수 ·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 Achievements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Throughout Its 30 Year History and Future Vision and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Yoo, Taemyung\* · Yang, Ji Sun\*\* · Ju, Sueun\*\*\* · Yu, Nan Sook\*\*\*\*1)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Lecturer, Department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Ec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flect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hereafter KHEEA) and to put forth a vision and a mission statement. To meet this purpose, first, reflection points were including the achievements of KHEEA for the last 30 years, the statu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mes of the bi-annual conferences of the Association, and the social contribu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It was revealed that research and instruc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rived by addressing social needs through its efforts in its 30 years of history. Second, a vision and a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ere proposed in order to explore the prospectiv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sharing of vision and mission functions as an ideal value and goal that home economics education as a profession should pursue, and it leads home economics professions to the direction that it should pursue. From this study, acting on a vision and a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ill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free individual, free society and sustainable environment, ultimately achieving the total well-being of individuals and families, society, and environment. This stud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rol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will become more prominent in the future society.

**Key words:** 한국가정과교육학회(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활동(activities of KHEEA), 성과와 성찰(achievement and reflection), 가치(value), 비전과 사명(vision and mission)

---

1) 교신저자: Yu, Nan Sook,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ongbong-ro 77, Buk-gu, Gwangju, 61186, The Republic of Korea  
Tel: +82-62-530-2524, Fax: +82-62-530-2529, E-mail: nansooksb@gmail.com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Turkki와 Vincenti(2008)는 세계가정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IFHE)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의 “Celebrating the pas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IFHE &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주제 강연에서 강연의 일부는 역사적 성과의 중요성을 돌아보겠지만 강연의 목적이 가정학 100년 역사를 돌아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사회의 도전에 준비하도록 돕는 의도로 가정학에 영향을 준 역사적 주안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Vincenti(1989, p. 88)에 의하면 역사는 어떤 사건, 사고와 사상, 그리고 넓은 사회적 맥락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성을 밝혀주는데 그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끝이 없어서 역사가 관심을 갖는 것의 관련성만을 밝히기에 일반화된 the history를 쓸 수 없고 여러 역사 중 하나인 a history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20년 활동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Cho, Jun과 Lee(2009)는 초기 여성교육을 목적으로 1886년 설립된 이화학당을 시작으로 가정교과와 시작과 발자취를 살펴보고 20여 년 동안 교육과정 개정 시마다 교과명의 변화, 주당 수업 시수의 감소 등 큰 도전적인 변화를 겪어 왔음을 언급하였다. 2019년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한 시수 감축과 다양한 선택 교과로서의 경쟁력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교과로서 이러한 도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가정교육과가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가정과교육의 환경과 가정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학술대회는 어떤 주제로 개최되었는지 살펴보고, 학교현장의 가정과 교사들의 사회적 기여 등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과교육은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도덕적 의무, 책임, 가족과 관련한 항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왔지만 변화하고 다양한 가족적 맥락, 가치관, 실천, 우리의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도덕적, 윤리적

결과들로 더욱 복잡해졌다(Laster, 2008). 이러한 끊임없이 도전적인 환경에서 세계가정학회(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2008)는 IFHE Position Statement를 통해서 가정학은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에서 복지를 향상시키고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옹호하기 위해 비판적, 변혁적, 해방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왔다. IFHE Position Statement는 세계가정학회가 활동해야 할 네 영역(학문분야, 일상생활, 교육과정, 사회적 활동)을 설정하고 그 영역에서 나아가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어떤 임무와 사명을 갖는지를 나타낸 문건이다. 세계가정학회와 같이 한국가정과교육학회도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해 있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에서 ‘비전’과 관련한 연구는 Chae, Lee와 Yoo(2010)의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Chae 외(2010, p. 152)는 Brown과 Paolucci(1979)가 제시한 가족을 변혁의 주체로 보는 가정교육학의 개념체계에 기초하여 가정과교육의 비전을 “가정과교육을 통해 가족개혁을 해내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 외 Park(2006)이 학위논문으로 가정과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해 정체성, 임파워먼트 및 비전을 다루었다.

미국의 경우, 비전과 사명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학회 수준의 연구를 통해 꾸준히 이어져왔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철학의 부재를 극복하고 철학을 재정립하기 위한 *New Direction*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59)에서 가치와 목표의 관련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New Direction*에서 가정학은 “가족이 개인, 가족과 지역사회에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돕고, 이러한 가치에 적합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을 돕는다”라고 하였다. 미국가정과교육학회가 의뢰하여 Brown과 Paolucci(1979)는 사명진술문을 제안하였다. 미국가정학회를 비롯한 5개 학회 연합회가 1993년 개최한 *Scottsdale Meeting*에서 11명의 가정학 전공자에게 의뢰하여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한 가정학의 명칭과 그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도록 임무를 주었다. 그 임무의 내용 중 한 가지가 가정학의 미션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최근 미국가정학회도 공식 홈페이지(www.affcs.org)에 가정학을 정의하고,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제시하였다. 미국의 국가가정학관리자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NASAFACS], 2018)가 제시한 가정과교육

의 비전은 개인과 가족이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글로벌 사회에서 삶과 일의 도전을 관리하는 임파워먼트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가정학관리자연합회(NASAFACS, 2018)의 가정과교육 비전과 사명진술문은 널리 공론화되었고 활용되었으며 국가 수준 및 지역사회 수준의 가정과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이 취한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음을 지적하였다. 즉, 가정과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잡는데 비전과 사명진술문의 영향력이 크다고 보았다.

뉴질랜드의 국가교육과정은 가치와 비전을, 미국의 국가 기준은 비전과 사명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총론에서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가정 교육과정 각론에서는 과목의 목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가정과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가치, 비전, 사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국내 문헌으로는 가정과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탐색한 Yang(2016) 외에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철학은 나아갈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과 같으며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교육의 큰 목표로서 기능하여 가정과교육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된다. 사명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과업을 깨닫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한다. Lee(2019, p. 68)는 이러한 비전과 사명의 공유가 없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만 취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비전은 구체적으로 교과나 학문이 어떤 이상적 가치를 지향하고, 무엇을 목표로 하며, 어떤 교육 관점에 기초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교육받은 사람은 어떤 특성을 지닐 것을 희망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정과 교육과정이나 학회의 입장을 알 수 있는 곳에 지향하는 가치, 비전과 사명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창립된 1989년에 쓰여진 Vincenti(1989)의 문헌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30년의 성과를 열거하고 기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지향점을 두고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가정과교육이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논의를 이끄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회고와 전망이라는 두 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가정과교육, 가정과 교사, 교사교육자,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입장에서 모두의 관심사를 역사의 기술과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가치 지향적 미래 비전과 사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에 기초하여 연구진의 숙고와 통찰을 통하여 제시한 비전과 사명에 대해 앞으로 가정과교육 분야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인들이 함께 속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he vision과 the mission을 제안하지 못하더라도 a vision과 a mission을 제안함으로써 가정과교육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비평하고 성찰하고 논쟁할 수 있는 예시로서의 토대(platform)를 제공하여 미래 가정과교육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길 기대해본다.

## 2. 연구내용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주년을 맞아 가정교육과 현황, 가정과교사의 교육환경의 변화,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학술대회 주제의 변화, 가정과교사들의 실천활동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개인과 가족, 가정과 교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교사교육자를 위한 비전과 사명진술문을 제시하였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회고’와 ‘전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내용을 다루고 있어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문헌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내용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가정과교육학회 30년을 회고, 성찰하기 위해 전국가정과교수협의회 자료, 전국 가정교육과 홈페이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의 교육과정,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홈

페이지 및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학술대회 주제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워드 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하였다. 가정과교사들의 실천활동을 탐색하기 위하여 전국 각 시도의 가정교과연구회로부터 연혁 및 연구활동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미래 비전과 사명을 제안하기 위하여 국내외 교육과정 문건, 가정학의 역사적·철학적 문헌, 가정교과교육 분야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숙의를 통하여 가정과교육의 과거, 현재, 미래를 고려하여 항구적으로 지향해오고 지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가정과교육의 미래지향적 비전과 사명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 II. 30년 회고: 성과와 성찰

### 1. 가정과 교육환경의 변화

#### 가. 가정교육과의 현황

20년 전인 1999년과 2019년 가정교육과의 현황을 비교하면 <Table 1>과 같이 17개 대학 71명의 전임교수에서 11개 대학 49명의 전임교수로 총 6개 대학의 가정교육과가 폐지되었으며, 22명의 전임교수가 줄어들었다. 2019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초로 집계한 총 모집 정원은 259명이다. 국립대 4개 대학의 입학 정원은 평균 16명, 사립대 8개 대학의 모집 정원은 평균 27.86명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가정교육과 모집 정원의 구체적 현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tatus of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학교명	설립 유형	1999년	2019년	2019년	비고
		교수수	교수수	학생수(학년별)	
강원대학교	국립	5	3	10	1975년 물리학과 가정과 신설
경남대학교	사립	5	4	30	1972년 의상학과 신설
경북대학교	국립	4	4	19	1954년 사범대학 가정학과 신설
고려대학교	사립	6	6	35	1971년 가정학과로 시작
동국대학교(경주)	사립	4	3	22	1980년 가정교육과 신설
동국대학교(서울)	사립	4	4	30	1971년 신설
배재대학교	사립	3	4	21	1972년 가정과 신설
원광대학교	사립	3	5	27	1959년 신설
전남대학교	국립	3	4	15	1972년 가정교육과 신설
전주대학교	사립	3	6	30	1964년 신설
한국국원대학교	국립	6	6	20	1985년 가정교육과 신설
공주대학교	국립	6			기술·가정교육과로 변경 신설
경상대학교	국립	5			
관동대학교	사립	3			
조선대학교	사립	4			
서원대학교	사립	4			
중앙대학교	사립	3			
합		71(17개 대학)	49(11개 대학)	259명	

나. 전국 가정교육과 전임교수의 전공비율

전국 가정교육과의 전임교수는 2019년도 전국 가정교과수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총 49명으로 파악되었다. 전임교수의 전공분야는 <Table 2>와 같이 가정교과교육학 분야는 8명(16.3%)으로 한국교원대학교가 유일하게 2명이며, 총 7개 대학에 재직 중이다. 가정교과교육 전공분야는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최소 3과목 8학점 이상을 필수로 개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11개 대학 중 4개 대학에 가정교과교육 전공교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정교과내용학 분야로는 식품영양학 분야 12명(24.5%)으로 제일 많고, 가족/아동학 분야 10명(20.4%), 의류학 분야 10명(20.4%), 소비자/가정경영 분야 5명(10.2%), 주거학 분야 3명(6.1%), 기타(기술교과교육학) 1명(2.0%)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18)의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제시된 가정과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혹은 분야)은 (1) 가정교육론, (2) 영양학, 식품과 조리, (3) 의복재료와 관리, 의복디자인과 구성, (4) 주거학, 실내디자인, (5) 가정경영, 소비자학, (6) 아동학, 가족학, (7) 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등 (1)-(7)분야 중 각 분야에서 1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1개 대학 모두에 (7) 가정생활과 복지, 가정생활문화, 가정생활과 진로 분야의 전공교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국 중등 가정교과교사 선발 인원 수

지난 10년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모집에 표시과목 ‘가정’이 <Table 3>과 같이 최소 10명에서 최대 157명으로 그동안 가정교과교사가 총 922명이 임용되었으며, 이에 신입교사 및 저경력교사의 수업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국가정교육학회, 각 시도 가정교과연구회,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다.

2. 가정과 교육과정의 변화

가.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 변천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가정과 교육과정의 목표 변천을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pp. 2-3)에서 목표는 ‘나의 삶, 가정생활, 산업 기술의 세계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하였다. 세부목표는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

Table 2. Academic backgrounds of faculties from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Academic backgrounds		N (%)
Home Economics education		8(16.3)
Home Economics contents	Family studies	10(20.4)
	Nutrition and food	12(24.5)
	Clothing	10(20.4)
	Housing	3(6.1)
	Consumerism/Household management	5(10.2)
Other		1(2.0)
Total		49(100)

Source: 2019 National Council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professors

Table 3. Number of job positions for home economics teachers of publicsecondary schools

Region	School year										Total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	9				5	4	28	32	33	27	138
경기	15			4	12	10	16	15	24	39/1	136
인천									15		15
대전	3				3	3	3	4	5	6	27
세종					8	8	2	8	3		29
대구	3	7			3	5	8	2	4	2	34
울산	5						7		4	1	17
부산						6	9	10	8	4	37
광주		2	2	2	3	2	3	2	1	1	18
강원				14	12	16	12	10	6	5	75
충남	2		2	9	20	19	16	3	10	11	92
충북		7	3		15	18	5	6	6	4	64
전남 일반					12	6	11	7	11	7	54
전남 도서					2	1					3
전북 일반	7				7	6	6	4	5	5	40
전북 도서								1			1
경남			3	3	3	4	20	12	13	12	70
경북		8			12	12	6	6		9	53
제주				4		4	5	4	2		19
합계	44	24	10	36	117	124	157	126	150	134	922

는 능력을 기른다.’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pp. 6-7)에서 목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 생활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하였다. 세부목표는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 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로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 p. 4)에서 총괄목표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실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로 제시하였다. 세부목표는 ‘사랑과 결

혼, 부모됨의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여 가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형성 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한식·한복·한옥의 가치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자립 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관리,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노후까지의 생활 설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관계형성 능력과 생활자립 능력을 기른다.’로 제시하였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현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과 진로탐색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생활 문제 해결과 진로뿐만 아니라 기초능력과 역량, 태도 함양에 중점

Table 4. Comparison of goals in home economics curriculum versions

구분	총론		각론	
	인간상	핵심역량	전체 목표	세부목표
2007 개정 교육과정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02.28.)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로를 개 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하는 사람, 공동체 발전에 공헌하 는 사람		나의 삶,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생활을 영위하여 현 재와 미래 가정생활과 사 회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 과 태도를 기른다.	가.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실천을 통해 가정생 활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함양하여 가정생 활에서 직면하는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정생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른다. 나. 일과 직업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영 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2009 개정 교육과정 (교육과학 기술부 고시 제2009-41호, 2009.12.23.)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나.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 휘하는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있 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라.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 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 하여 건강한 개인 및 가정 생활을 영위하여, 현재와 미래 생활을 주도할 수 있 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나와 가족을 이해하고 가정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활능력을 함양하여 가정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개인 및 가족 구성원으 로서 자신의 삶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15.09.23)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 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 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 보처리 역량, 창의융합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	가정생활에 대한 지식, 능 력, 가치 판단력을 함양하 여 실천적 문제해결을 통 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 여 현재와 미래의 행복하 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주 도적으로 영위한다.	가. 사랑과 결혼, 부모됨의 선택이 새로운 가족 형성의 기반이 됨을 이해하여 가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실천할 수 있는 관계형성 능 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나. 한식·한복·한옥의 가치와 타문화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가정생활 문화를 유지·발달시 킬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 비판적 사고와 가치판단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 한 삶을 위한 이성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생활자 립 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른다. 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개인적·사회적 자원을 관 리, 활용하는 방법을 탐색하고 노후까지의 생 활 설계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통하여 삶의 질 을 높일 수 있는 관계형성 능력과 생활자립 능 력을 기른다.

Sourc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7, pp. 2-3),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09, pp. 6-7), Ministry of Education(2015, p. 4)

을 두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총론에서 제시한 공통역량 이외 각론에서 교과역량을 세부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나. 가정과 교육과정의 성격 변천

가정 교과 성격의 변천은 교육과정의 항목에 성격이 명시 되기 시작한 제6차 교육과정을 전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이후의 시기는 실천적 학문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하여 재구분할 수 있다.

2007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p. 2)에서는 교과의 성격을 ‘실천교과’

로 정의하고, 성격항목에서 ‘7~10학년에서는 가정생활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래 생활을 설계하는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7~10학년 가정 분야는 학습자 자신과 가족이 전 생애에서 접하는 생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활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로 제시하였다.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pp. 5-6)에서는 교과의 성격을 ‘실천 교과의 성격을 가진 보통 교과’로 정의하고, 목표항 아래 성격항목에서 ‘학습자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접하는 다양한 현상과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학습자의 경험을 통하여 당면한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갖추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삶과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로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은 총론이 아닌 각론에서 '자기관리 능력,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창의력, 진로개발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Ministry of Education, 2015, p. 3)에서는 '실천 교과 성격의 가진 보통 교과'로 정의하고 성격항목에서 '청소년기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개인과 가족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며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 지역사회, 자원, 환경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과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로 제시하였다. 총론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각론에서 실천적 경험 속에서 '실천적 문제해결 능력, 생활자립 능력, 관계형성 능력'의 교과역량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한 삶, 안전하고 건강한 삶, 균형 있고 조화로운 삶을 이뤄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의 시기에 따라 성격 항목에 가정생활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왔으며 그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도 달라져 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의 관점이 반영되면서 실천적 추론/가치판단/실천적 문제해결력과 같은 고차적 사고능력이 강조되었으며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정교과의 관점과 성격이 부각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역량을 강조하는 추세에 힘입어 각론에 핵심역량이 제시되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론의 핵심역량과 각론의 교과역량까지 개발되어 교과지식과 태도를 포함해 역량의 함양을 요구하게 되었다.

#### 다. 가정과 교육과정의 문서 체제 비교

가정과 교육과정 문서 체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항목은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로 구성되었으며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 항목으로 이분화되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항목에 추가하였으며 목표항에서 성격과 목표를 분리하였다. 특히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항목은 '내용체계'와 '학년별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2009 개

정 교육과정의 '내용영역과 기준' 항목은 '내용체계'와 '학년군별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달성해야 할 기준인 성취기준을 학년군별, 학습내용별로 구체화하였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역량과 성취기준을 도입하였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의 성격에 도입된 역량이 내용 및 성취기준과의 관련성이 교육과정상에 제시되지 않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 항목을 삭제하고 성격과 목표항을 분리하였다. 목표항은 다시 총괄목표와 세부목표로 나누어 학교급 및 학년군별 목표를 진술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항목은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으로 구성되어 성취기준은 각 영역에 따른 학습요소,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등으로 이전의 교육과정 시기와 비교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다.

2007 개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정생활 영역으로 통합적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영역,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식, 내용요소, 기능을 구조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의 교육과정들과는 달리 각 영역별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항목을 구성하고 있어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를 정교화하여 학습을 유도함으로써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를 강조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5>).

### 3. 학술대회의 변화

#### 가. 학술대회 주제의 변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주년 학술대회 이후, 세 번의 새로운 정부에 따른 교육정책이 발표되고, 두 번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다. 20주년 학술대회부터 지난 10년 동안 논의된 주제들을 분석하는 것은 학회가 보여준 학문적 방향성을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의의가 있다. 그동안 학술대회의 주제에 따른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를 분석하면 가정과교육과 관련하여 사회적 기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수업, 학교



Table 5. Comparison of curriculum document structures

7차 교육과정	2007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
1. 성격	1. 성격	1. 추구하는 인간상 2. 학교급별 목표	1. 성격
2. 목표	2. 목표	3. 목표 〈성격〉, 〈목표〉	2. 목표 〈총괄 목표〉, 〈세부 목표〉
3. 내용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3. 내용 가. 내용체계 나. 학년별 내용	4. 내용의 영역과 기준 가. 내용체계 나. 학년군별 성취기준 다. 학습내용별 성취기준	3.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가. 내용체계 나. 성취기준 (1) 영역명 (가) 학습요소 (나) 성취기준 해설 (다) 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라)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4. 교수·학습방법	4.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자료활용〉	5. 교수·학습방법 〈교수·학습 계획〉 〈교수·학습 전략〉 〈교수·학습 자료〉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나. 평가 방향
5. 평가	5. 평가 〈평가 계획〉 〈평가 내용〉 〈평가 결과의 활용〉	6. 평가 〈평가 계획〉 〈평가 목표와 내용〉 〈평가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교육, 교사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Table 6>).

첫째,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주제는 가정교과의 사회적 기여(2010년도 하계), 저출산과 식생활교육(2011년도 하계), 청소년의 삶과 관련된 4대악 예방(2013년도 동계), 일과 가정의 양립(2014년도 동계), 제4차 산업혁명(2017년도 춘계), 지속가능한 미래교육(2018년도 추계) 등이었다. 사회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 속에서 가정교육의 실질적인 기여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학교현장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관련한 주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서의 현장적용 전략(2009년도 동계),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2014년도 하계),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이해(2015년도 추계), 세계의 교육과정(2016년도 춘계) 등이었다.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두 번의 교육과정 개편의 시기를 겪으면서 교육과정 개정과 학교현장 적용전략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셋째, 교수학습과 수업에 관련된 주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혁신적 교수·학습 전략(2010년도 동계)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과 평가(2017년도 추계)였다. 넷째, 학교교육과 관련된 주제는 학교폭력문제나 생활 안전문제 등의 청소년 생활교육(2011년도 동계, 2012년도 하계), 자유학기제를 통한 진로 교육(2013년도 하계), 청소년을 위한 부모교육(2016년도 추계) 등이었다. 다섯째, 가정과 교사교육은 가정과 교사의 성찰과 실천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2018년도 춘계)에 대하여 다루어졌고, 학교현장에서 가정과교사가 가져야 할 사명과 교사전문성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학술대회의 주제변화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학회가 급변하는 교육 정책에 대응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연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학술주제를 분석한 <Figure 1>을 살펴보면, 역할이라는 핵심키워드가 강조되었다는 것을

Table 6. Analysis of themes of KHEEA conferences for 10 years

년도	구분	주제	일자
2018	추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정과교육 -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	2018. 11. 10.
	춘계	가정과 교사의 성찰과 실천을 통한 교수역량 강화	2018. 6. 2.
2017	추계	행복한 삶을 밝히는 가정과 수업: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	2017. 11. 4.
	춘계	제4차 산업혁명과 가정과교육	2017. 6. 10.
2016	추계	학교교육에서의 부모교육과 가정과교육의 역할	2016. 11. 5.
	춘계	세계 가정과 교육과정	2016. 8. 1
2015	추계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한 2015 가정과 교육과정의 이해	2015. 11. 7.
	춘계	2015 개정 기술·가정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발전적 탐색	2015. 5. 30.
2014	동계	교육과정에 바란다 II 가족친화적 가치 및 일·가정 양립 역량을 키우는 가정과교육의 역할과 강화 방안	2014. 11. 8.
	하계	새 교육과정에 바란다 I 2009 개정 가정과 교육과정의 평가와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2014. 5. 31
2013	동계	4대 악의 예방과 가정과교육	2013. 11. 30.
	하계	‘자유학기제’의 이해와 가정과교육에의 적용	2013. 7. 13.
2012	동계	청소년 생활문화와 힐링	2013. 1. 8.
	하계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 교육의 역할	2012. 7. 26.
2011	동계	가정교과를 통한 청소년 생활교육	2012. 1. 5.
	하계	가족과 사회의 행복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주도적 역할과 실천방안 -저출산 극복과 식생활교육을 중심으로-	2011. 7. 26.
2010	동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비한 혁신적 교수·학습 전략	2011. 1. 5.
	하계	가정교과의 사회적 기여와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방안	2010. 7. 27.
2009	동계	새로운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의 현장적용 전략	2010. 1. 6.



Figure 1. Word cloud analysis of themes of the KHEEA conferences for the last 10 years

알 수 있다. 가정과교육과 관련된 사회적 기여, 교육과정, 교수·학습과 수업, 학교교육, 교사교육에 있어서 역할이 강조 되었다는 것은 학회가 제시하는 학문적 방향에 대하여 학회구성원의 후속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학회는 학술대회에서 다루었던 주제에 대하여 학회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실행될 수 있도록 학문적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나. 학술대회 기조강연 및 주제발표의 범주와 내용

앞에서 살펴본 학술대회의 주제별 범주에 따라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100개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Figure 2>와 같이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는 사회적 기여, 교수학습, 교육과정, 학교교육, 교사교육 범주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과교육의 세부분야로 나누어 분석하면 <Figure 3>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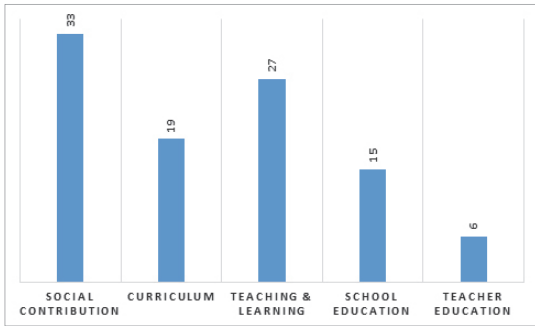


Figure 2. Distribution of the categories of keynote lectures and thematic presentations of KHEEA conferences for the last 10 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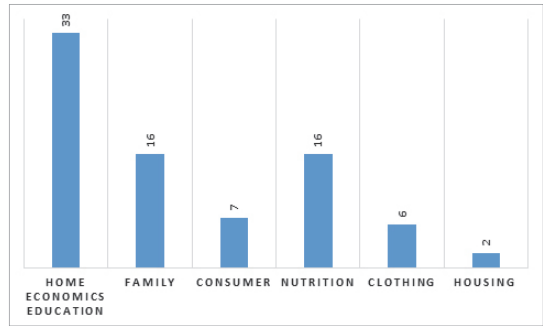


Figure 3. Distribution of the sub-categories of keynote lectures and thematic presentations of KHEEA conferences for the last 10 years

같이 교과교육 영역이 가장 많았고, 가족·아동 영역, 식생활 영역, 가정생활소비 영역, 의생활 순이었고, 주생활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가정교과교육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하고 가정교과교육의 역할을 제고하여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가정교과교육의 세부영역별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논의하고, 학교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던 노력은 가정교과교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업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20주년 이후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진 논문들은 사회 현안과 교육적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가 있었으나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가정교과교육의 철학과 사명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가정교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등학교에서의 교과목 편제를 고려할 때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노력은 필요하나 가정교과교육의 미래학문으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교과교육의 철학과 사명을 다루는 항구적인 문제를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가정과 교사들의 실천활동

##### 가. 가정교과연구회

###### 1) 가정교과연구회의 형성 배경과 설립

가정교과연구회는 전국 각 시도에 가정교과교사들의 수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사들이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일종의 ‘전문적 학습공동체’이다. 교과연구회는 지역교육청의 가정과장학사나 가정교과교사 출신 교장 또는 교감이 주도해서 모임을 만들어 매년 지역교육청이 요청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 공모에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고 운영하거나, 지원금과 상관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가정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교사들에게도 교실 수업 개선을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사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Kim, 2007).

가정교과연구회가 형성된 배경은 우리나라 교원 양성,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유지를 위한 구조적인 제도가 부적합한 데 연유한다. 즉, 중등 임용고시를 합격하고 교직에 입문하고 나서 3-4년 후에 받게 되는 1급 정교사자격연수 외에 교사의 전문성을 점검하고 거르는 구조가 없다. 단, 학교 단위에서 연간 60~120시간 직무연수 이수가 현장교사들의 요구조건이긴 하지만 교실 현장에 와서 교육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수업과 학습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 각 시도 가정교과연구회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4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각 시도 가정교

Table 7.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for home economics teachers

연구회명	설립연도	지역	특이사항
전국가정교사모임	1993	전국	가정교육의 올바른 방향 실천, 가정교과의 정체성 인식, 인간존중의 교육 추구
강원가정교육연구회	2002	강원	2015년까지 총 13회 강원도청소년창의력경진대회(요리분과) 개최 및 운영을 통한 진로 탐색 및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기회의 장 마련
경북가정교과연구회	1993	경북	2015년부터 매년 3-4회 ‘즐거운 가정과 수업’ 운영
경기도중등가정교육연구회	1995	경기	가정교과사의 수업혁신을 위한 중심 메카, 화두가 되고 있는 교육주제를 다루는 선진적 연구활동
경남중등가정교과교육연구회	1993	경남	경남 가정교육의 연구 발전과 혁신적인 수업 모듈 개발
대구중등가정교육연구회	1995	대구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을 통해 대전교육발전에 기여
대전시가정교과연구회	2002	대전	매년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 뿐 아니라 2010년부터는 매년 현장교사자율직무연수 개최
전남가정교사모임	1988	전남	교과서분석과 가정교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공부로 시작

과연구회 회장 또는 총무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혁과 특이사항,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 등 자료를 모아서 총 8개의 가정교과연구회로부터 답신을 받은 결과를 분석하였다. <Table 7>과 같이 각 시도 가정교과연구회의 설립연도는 1993년부터 2002년으로 분포되었으며, 각 지역에서 수업혁신을 위해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2) 가정교과연구회 활동주제

각 시도 가정교과연구회에서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들을 분류한 결과, 사회적 기여, 교육과정, 수업활동, 교육정책, 학생역량개발, 교사역량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변화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수업 개발을 논의하는 것이 주된 주제였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따라 내용이 지정되기도 하여 교육과정 개정 또는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대책을 위한 주제를 주로 다룬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시의적절한 주제 이외 보다 근본적인 교사역량개발과 같은 주제가 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 기여-저출산 고령사회, 녹색생활, 4대 사회악 예방, 지속가능한 가정생활
- 교육과정-실천적 문제 중심수업, 2007 개정/2009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성취기준의 이해
- 수업활동-학습자료 개발(학생중심, 주제중심, 배움중심, 도서관 활용, 만화, 도서, 체험, Storytelling, E-study, 멀티

미디어 자료), 평가문항 개발(서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성장중심 평가)

- 교육정책-창의인성교육, 안전교육,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창의 공작, 코딩메이커교육,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
- 학생역량개발-창의·인성, 창의력 신장, 고등사고력 신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실천비판 능력, 행복지수, 통섭하는 문화, 존중과 배려, 생활공감, 융합·인재 교육, 질문, 배움과 성장, Edu-사고(4-go), 액션 Q(Question)
- 교사역량개발-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수업나눔공동체, 가정교과사의 역할

3) 가정교과연구회 활동 활성화 방안

각 시도 가정교과연구회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면서 가정교과연구회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요청하였으며, 경북가정교과연구회가 운영해 온 ‘즐거운 가정과 수업(일명 즐기수)’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이 사례를 중심으로 가정교과연구회 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북 지역은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이라 학교당 가정교과사가 한 명만 있는 경우가 많아 학내 동료장학의 기회가 적다고 한다. 그래서 가정교과사들이 교실수업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학생참여중심·배움중심 수업활동을 목표로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관심이 많다. 이러한 가정교과사들의 요구에 따라 ‘즐기수’ 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현재 15차 진행된 상태이다. ‘즐기수’는 교사 한 명이 자신의 수업을 보

여주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즐거우’ 프로그램에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창기에는 수석교사가 주도하여 수업을 공개하였으며, 이후 연구교사와 저경력교사 순으로 수업을 공개했다고 한다.

이는 교사들의 수업공개 문화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자신의 교실을 ‘나의 성(城)’으로 수업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Palmer(1998)는 이를 ‘닫힌 문’ 뒤에서 가르치기’라고 하였다. 이러한 ‘즐거우’의 성공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런 교직 문화를 잘 파악하고 교사들이 ‘닫힌 문’에서 나와 자신의 수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전략을 슬기롭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등학교를 나누어 학교급별 분과협의체를 구성하여 더욱 전문화된 수업자료 나눔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한 것도 성공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외에 ‘즐거우’에 교사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도교육청, 학교, 교과연구회 등 각 차원에서 적절한 유인방법이 있었다. 즉,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즐거우’를 수업 역량 강화 연수회로 인정하여 연수 이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고, 수업공개교사의 소속 학교 또한 교사의 자기연찬의 기회로 인식하여 주말 중에도 시설 공개에 협조적이며 참석하는 교사들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하도록 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연구회 차원에서는 ‘즐거우’에서 공유했던 수업자료를 책자로 보급하고 실시간으로 수업공개 자료를 SNS에 공유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교사들에게도 다음 회차 참석 독려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한다.

가르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전문적인 방법으로 사회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복잡한 활동이다. 그러나 전통적 교육에서는 교사들을 수동적으로 지식을 수용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누가’, ‘왜’ 가르치는가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강조하였다(Banner & Cannon, 1997, Rogers & Babinski, 2003 recited). 또한 Palmer(1998)는 가르침을 테크닉으로 보는 경향으로 인해 교사들이 동료들 간에 깊이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으며, Meyer(1999)도 교사들이 각자의 경험으로부터 경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의 협력적인 이야기 나누기가 전문성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Rogers & Babinski, 2003 recited)

## 나. 수업을 통한 사회적 기여

가정학은 사회에 봉사하는 학문인 전문분야로 학문 밖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다. 가정학을 수업 내용으로 다루는 가정과교사는 수업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운다. 가정과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식생활 문화 개선, 성인권과 미투 운동, 자아정체감 발달시키기 등 세 주제로 실행한 수업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 1)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식생활 문화 개선

D 지역의 W교사는 중학교 1학년 318명을 대상으로 5-6월 까지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식생활 문화 개선 수업을 5차시 실시하고, 그 이후 모둠별로 홍보활동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하게 하고 나서 2개월 후 학생들의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학생들의 식생활 변화에 대한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홍보 활동을 통해 본인의 실천의지를 다지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한다는 보람을 느끼며 수업 및 실천 활동 중 더 많은 자료를 제작하고 다양하게 활동(홈페이지 제작, 건강, 보건 관련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 상가 및 가정 방문 설명, 지하철 내 홍보 활동, 올바른 식품 선택을 약속하는 서명 받기, 홍보지 나눠주기 등)하였다고 답하였다. 또한 실제 학교 급식 시간에 골고루 먹기 위해 노력하고 가공식품을 적게 선택하는 등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답했다.

### 2) 성인권과 미투운동

K교사는 미투운동과 관련지어 학생들에게 성평등 수업을 준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남과 여 대결로 방향이 흐를 것을 우려하여 성대결이 아니라 성인권으로 수업흐름을 정하여 총 7차시 수업을 준비하였다. 중 3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4차시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찾기, 차이와 차별 구별하기, 독서를 통한 고정관념 극복활동(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는 페미니스트(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 TED영상), 현남오빠에게(조남주), 맨박스(토니 포터), 나의 첫 젠더수업(김고연주), 일상속의 성차별(로라 베이츠/

동영상, 웹사이트), 학교에 페미니즘을(초등성평등연구회), 데지책(앤서니 브라운) 등), 5차시에는 성인권과 미투운동, 6~7차시에는 그동안의 수업내용과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홍보물 만들기로 하였다.

7차시 수업이 모두 끝난 후 한 남학생으로부터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신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통해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회적 문제나 편견 등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라는 답을 받았다.

### 3) 자아정체감 발달시키기

D 지역의 W교사는 수업 전에 과제 <인생의 10대 뉴스 정리>를 부여하여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한 후, 1차시에 현재 자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모습 비교하게 하였다. 2차시에는 자신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데, 사물에 비유하거나 의복으로 표현하도록 하였다. 3차시에는 변화시키기 힘든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점을 찾아 미래를 설계하도록 하였다.

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 및 성과를 살펴보면 현재의 삶이 과거뿐 아니라 미래와 연관됨을 생각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삶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 측면의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느끼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특히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며 인생을 설계함으로써 목표가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사회 참여뿐 아니라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서 깨닫도록 하는 것 또한 가정과 교육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이 외 가정교육 분야에서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연구들을 예비 또는 현직 가정과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 또는 적용한 연구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안전교육, 인성교육 등과 같은 주제로 이루어졌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거나 가정과교육의 접근 방안을 탐색한 연구(Son & Chae, 2013), 청소년의 생활 안전교육을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연구(Kim, Chae, & Cho, 2016; Song & Cho, 2017), 인성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연구들(Kang & Yu, 2018; Lee et al., 2013; Paek & Cho, 2015; Park & Yu, 2018; Park, 2012)이 그것이다.

## III. 미래 전망: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East(1980)는 순수학문 분야가 아닌 가정학과 같은 전문분야의 실천은 핵심적 가치를 표현하고 공공(public)의 안녕을 위한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이타적 관심에 의해 지지받는 정체성과 깊은 관련 있다고 보았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30주년에 기하여, 미래 가정과교육의 방향 제시에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국내외 역사적·미래지향 문헌(McGregor, 2006, 2008, 2010; Nickols & Collier, 2015; Park, 2006; Yang, 2016)을 바탕으로 웰빙, 자유, 임파워먼트, 지속가능성으로 상정하였다.

### 1. 웰빙(well-being)

#### 가. 웰빙(well-being)의 의미

가정과교육의 역사는 가정생활의 배경에 영향을 주는 것들과 함께 해왔고 궁극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로 웰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Brown과 Paolucci(1979)는 가정학의 사명을 통해 “개별적인 자아형성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행동 시스템의 구축과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개인과 가정의 웰빙은 가정과 교육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웰빙(well-being)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많은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웰빙의 의미를 살펴보면 웰(well), 행복(happy), 건강(health), 또는 번영(prosperous)하는 상태(McGregor & Goldsmith, 1998, p. 5)로 정의한다. 근래에는 건강(health)과 관련하여 웰니스(wellness)를 웰빙과 유사한 의미로 다루었으나 King(2007)은 웰니스가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의 선택과 실천을 강조하는 반면 웰빙은 삶의 한 방식으로 책임을 강조하며 행복하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상태로 구분하였다. Venhoven(2004)은 웰빙이라는 용어가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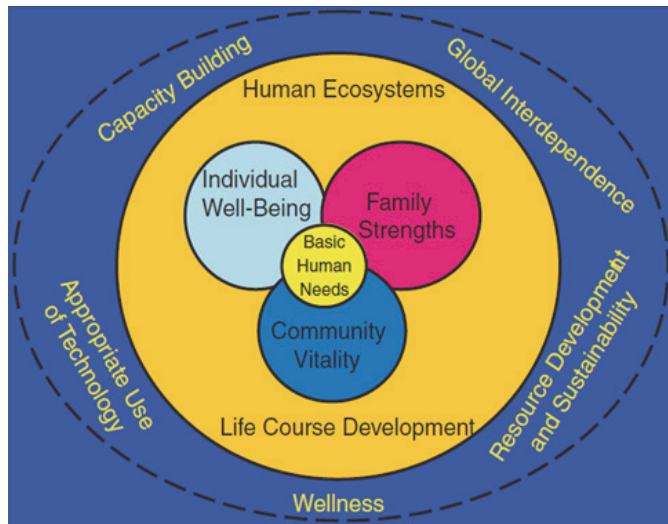
면 것이 좋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으나 그 자체로 무엇이 좋은 상태인지, 또는 무엇이 좋은 상태인지의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웰빙이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 Marshall, McMullin, Ballantyne, Daciuk와 Wigdor(1995)는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경제적 안정을 갖추고, 존중받고,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주변 구성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현재의 상태’로 보았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goods)으로 ‘덕과 일치하는 영혼의 활동’을 ‘행복(happiness)’이라고 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를 빌어 King(2007)은 에우다이모니아(eudaimonic) 접근과 헤도닉(hedonic) 접근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웰빙을 개념화하였다. 에우다이모니아 접근은 사회적 맥락의 자원 또는 사람들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며, 헤도닉 접근은 주관적 경험과 연계된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만족감으로 볼 수 있다. 전자는 웰빙의 수단으로 보는 소득·소비 기반 접근이며, 후자는 웰빙의 성취로 보는 욕구 기반 접근이다(McGregor, 2010). 후자인 욕구 기반 접근에서 Nieboer, Lindenberg, Boomsma와 Van Bruggen(2005)은 개인의 전반적인 주관적 웰빙과 개인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여러 차원의 웰빙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웰빙의 차원은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개인의 자주적인 웰빙을 포함한 다차원적이며(Alkire, 2002; McGregor & Goldsmith, 1998; Ryff, 1995), 이는 가족관계, 이웃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과 정책, 시민의 힘과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가정학의 실천을 위한 지식의 본질로서 표현된 The body of knowledge 모형(Nickols et al., 2009)을 살펴보면 이러한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통합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핵심개념(core concepts)으로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basic human needs)를 둘러싼 개인의 웰빙(individual well-being), 가족의 강화(family strengths), 지역사회의 활력(community vitality)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생태 시스템(human ecosystems)과 생활코스 개발(life course development)이 이들을 둘러싸고 있다. 범분야 주제로서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글로벌 상호의존성(global interdependence), 자원개발과 지속가능성(resourc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technology), 건강(wellness)과 같은 다섯 가지를 포함하여 지식을 다룰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Figure 4>).

따라서 가정학에서 지향하는 가치로서의 웰빙은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맥락에 따라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전체, 사회 전체의 삶을 위한 인간의 조건(conditions of human), 사회의 조건



Source: Nickols et al. (2009, p. 270)

Figure 4. Body of knowledge model

(conditions of society)을 형성하는 것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나. 웰빙(well-being)의 두 가지 접근

가정학은 역사적으로 ‘가정에서의 관리 및 제어의 효율성’을 통한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웰빙’과 ‘가족 간의 인간관계 및 성격 발달을 통한 사회·심리적 웰빙’과 같이 이차원적으로 해석해왔다(Brown, 1993). 물리적인 차원은 삶의 질과 같이 자신의 조건과 관계에 대한 만족도 수준으로 인식될 수 있고, 삶의 수준과 같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정량적 척도로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이 익숙해지는 생활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웰빙의 물질적인 토대는 주어진 것을 활용하는 개인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Sen(1999, pp. 70-71)은 이러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게 하는 원인을 각 개인의 이질성(personal heterogeneities), 기후, 환경문제와 같은 환경의 다양성(environmental diversities), 공공 교육제도 및 사회적 조건의 다양성(variations in social climate), 관습과 공동체마다 다른 관계적인 시각의 차이(differences in relational perspectives), 가족 내부의 분배 차이(distribution within the family)로 구분하였다.

McGregor(2006)는 전문분야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촉진하기 위한 변혁적인 실천에 관여하고 있다면 인간의 조건을 포용하도록 웰빙에 대한 사고의 확장을 제안하였다. Brown은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가족의 웰빙을 둘러싼 기존의 조건을 분석할 때 파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규범적 접근을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실증적인 실재론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Brown(1993)이 규범적인 기본 개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웰빙을 다음과 같이 기술적인(descriptive) 접근과 규범적인(normative) 접근으로 구분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Figure 5>). 기술적인 접근은 정보와 사실을 생성하는 반면 규범적인 접근은 중요한 맥락, 가족의 웰빙에 관한 여러 상태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개인과 가족은 매일 직면하는 현실에서 가정(assumption), 숨겨진 가치(hidden values) 및 힘(power)의 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예를 들어, “가정학자는 불충분한 경제적 웰빙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대신 규범적인 접근에서는 “낮은 경제적 웰빙의 상태로 이끄는 불공정, 불안, 권리 침해와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Brown, 1993). Brown(1993)은 가족과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정서적인 상태나 조건을 설명하는 대신 정의, 형평, 평등, 공정성, 자유, 인권, 인간의 책임, 안전, 지역사회 탄력성과 폭력 및 비폭력, 참여, 권력, 이해관계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여 그러한 조건을 해석하였다.

기존의 가정학자들은 개인과 가정이 가진 잠재력을 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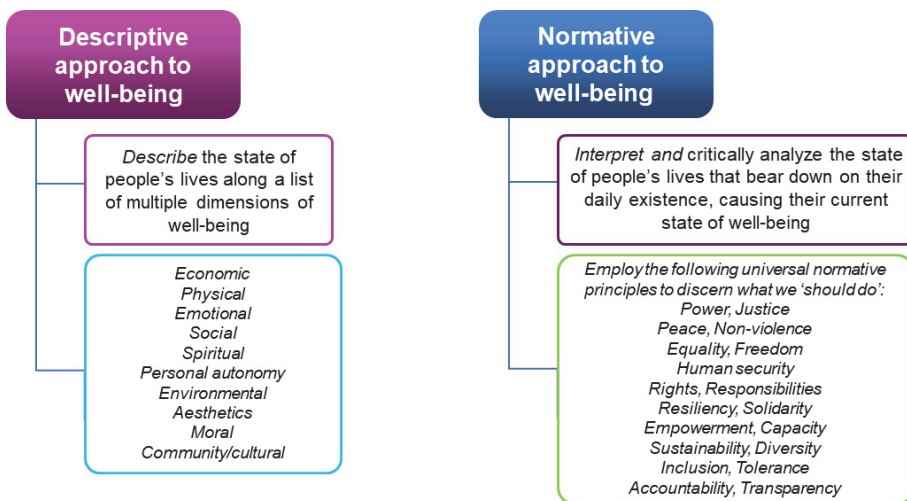


Figure 5. Descriptive and normative approaches to well-being

Source: Brown(1993: McGregor, 2010, p. 26 recited)



한 채 ‘삶의 질, 개인과 가족의 웰빙’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McGregor, 2010), 인간의 욕구가 인간 조건의 모든 측면 혹은 그 반대에서도 상호관계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McGregor(2010)가 언급한 대로 건강한 가정과 가족은 인간 전체의 사회적 진보와 번영을 이뤄낼 수 있는 인간 조건에 부합한다. Brown(1984, p. 50)은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정의 물리적, 사회적, 도덕적, 미적, 정신적 조건의 함축에 대한 의식을 높임으로써, 개인의 역량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조건을 개선해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웰빙을 위한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정을 둘러싼 상호관련된 조건들을 규범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자유, 자주, 자립

### 가. 자유(freedom)

일찍이 1904년 미국 가정학 역사에서 가정학의 비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Richards' Creed에서 자유가 언급된다. Richards는 “사물의 지배로부터 가정의 자유 그리고 이상에 대한 그들의 정당한 종속”, “가정과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관심사를 위해 정신을 가장 자유롭게 할 물질적 환경의 단순성”을 가정학의 신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자유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억압이 물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더욱 간결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물리적 환경과 생활양식을 지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항구적 관심을 위해 정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 등 네 가지의 신념 중 두 가지의 신념에서 자유를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반해 Chown(1902)은 자유(freedom)라는 개념을 “도덕적, 지적 자유를 포함하는 연구분야로서 가정학과 양육환경으로써 가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 주장하며 가정학이 인간의 도덕적, 지적 자유를 포함하는 전문분야임을 강조하였다.

Berlin(2002)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 혹은 부정적 자유(negative freedom)와 적극적인 자유 혹은 긍정적 자유(positive freedom)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소극적 자유(negative freedom)

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자가 자기 뜻대로 행위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에 비해 적극적 자유(positive freedom)란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의 상태나 능력”을 뜻한다. Berlin의 적극적 자유는 Kant 철학에서의 온전히 자신 것이 되는 자주성(autonomy)과 의미를 같이 한다. Dimova-Cookson(2013)에 의하면 소극적 자유는 의도적으로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자유는 우리의 이성적인 본성에 부응하고, 진정한 지식을 얻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을 형성함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적극적인 자유는 우리를 독립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소극적인 자유보다 안정적이며, 정의, 평등, 공정성 또는 인간의 행복과 분리된 비합리적인 행동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극적인 자유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rendt(2017)는 인간의 자유는 언어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현시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Jaspers(1973, p. 176)도 ‘자유는 통찰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입증된다. 자유의 존재에 대한 배려에는 이미 활동이 담겨 있고, 이 활동에서 자유가 실현된다’고 하여 자유와 행위는 불가분한 관계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의 조건은 사회의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영향력은 개인적 자유의 범위와 한계에 힘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의 확장은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한편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우리를 더욱 완전한 사회적 인간이 되도록 한다(Sen, 1999). 여기서 자유는 오늘날과 미래에 모두에게 좋은 삶을 제공하고자 하는 윤리적 규범성을 가진다. Sen(1999)은 규범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자유는 개인의 동기와 사회적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유가 커지면 개인이 가치 있는 것을 산출하는 기회도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Brown(1985, p. 42)은 가정교과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 상호작용하고 사고의 자유를 통해 자유로운 도덕적 주체가 되려는 인간의 잠재성을 발달시켜준다고 믿었다. 변화의 능동적인 행위자로서 자유로운 주체는 다른 행위 주체자들을 강화시키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는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사회적 지배와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고, 껴어있는 이성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이해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Brown, 1985, p. 42)으로 성장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우리는 개인이 자유롭고 윤리적인 주체자가 되기 위해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규범적인 관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자주(autonomy)

자주(autonomy)라는 용어의 어원적 기원은 ‘self’라는 의미를 지닌 그리스어 ‘auto’와 ‘law, rule, principle’의 의미를 지닌 ‘nomos’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가 가진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자율(self-rule) 혹은 자치(self-government)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Laceulle, 2018). 자주는 이 용어를 Feinberg(1986)는 다음과 같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네 가지 의미로 구분하였다. 첫째,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둘째, 자치의 사실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로, 셋째, 자치라는 개념에 기초한 인격적 이상에 해당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권위를 의미하는 개인의 자주성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의 자주성은 능력으로서 자주성의 조건이 되며, 사람마다 다른 세 번째 의미는 인격의 이상으로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 역동적인 발전 과정을 나타낸다. 이상적인 인격에 이용되는 세 번째 의미는 주체(agents)의 자주적인 능력의 유무를 전제로 한다. 네 번째 의미는 자주성의 존재와 부재가 대조가 되지만 자신에 대한 주권적 권리로서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동체 정치 국가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자주성은 Kant의 도덕 철학과 연결되어 인간 주체(human agents)들이 이성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자신의 내적 도덕법칙에 따를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Kant의 관점이 가진 중심에는 선의(good faith)가 있으며, 이러한 의지(will) 덕분에 주체들이 이성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성은 사람들이 정당한 행동방침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Kant의 자주성과 자기결정의 개념은 낙관적인 의존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지만 자기이해의 획기적인 개념이 되었다(Laceulle, 2018, p. 161).

Talbott(2005)은 결과론적 개념에서 자주성을 좋은 판단력과 자기결정력의 조합으로 소개하였다. 좋은 판단력은 자신의 이익에 대하여 신뢰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며, 자기결

정력은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삶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것에 믿음을 가진다. 이러한 자주성에 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Talbott(2010)은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판단력이 좋으면서 무엇이 좋은지 모를 때, 또 다른 하나는 판단력은 좋으나 자기결정력이 부족할 때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이성적으로 자신에게 좋은 것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결과론적인 의미에서 자주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자주성의 개념을 Meyers(1989)는 실행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자주적인 역량(autonomy competency)으로 정의하고 실행에 필요한 요소를 자기발견(self-discovery), 자기정의(self-definition), 자기지향(self-direction)으로 나누었다. 자기발견은 자신의 성향, 반응, 판단 등을 반성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에 기초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고려에는 자기정의를 포함하고 있다. 자기지향은 자신의 인생 계획과 자아이미지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기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자주성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자기지향이지만 자기발견과 자기정의도 필수적이며 이들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상호작용하며 기능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욕망이나 남의 명령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이성 따르는 자주성의 본질적인 요소에는 자유가 포함된다. 자유(freedom)는 외부의 결정 요인으로부터의 자유(free)가 아니며 자주적인 것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지만 자주성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 다. 자립(independence)

자유와 연결된 또 다른 요소는 자립이며, 이것은 인간의 생존 과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고 통제하는 행위를 통해 성립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속감 욕구, 자존감, 인지적 욕구, 심미적 욕구, 자아실현, 자기초월(Maslow & Lowery, 1998)로 구분할 수 있다. Maslow(1968, 1971)에 의하면 물질적, 정서적 행복 등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개인의 성장이나 발달에 더 높은 단계의 욕구에

관심을 가진다. 낮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으며 이미 충족된 욕구도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욕구로 이행되지 못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에게 상위의 욕구가 충족될 때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인격의 발달로도 이어질 수 있다. Maslow(1971)는 결핍과 현실화라는 두 계층은 분명하게 분리되지 않고 상호 연관성을 가지며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결핍된 욕구를 가지게 되면 개인의 행복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Huitt(2007)는 이러한 Maslow의 8가지 욕구를 3가지 수준으로 재조직하여 자신의 존재, 집단 및 중요한 사람들과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타인과의 관련성, 성장 즉, 자신의 지식, 역량, 성격의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관계로 구분하였다. Max-Neef(1991)는 서로 관련성을 가진 인간의 기본 욕구체계를 실존적인(existential) 범주와 가치론적인(axiological) 범주로 분류하였다. 실존적 욕구는 경험(활동 수준)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사람은 존재하고(being), 소유하고(have), 행하고(doing), 상호작용(interaction) 하는 욕구를 지닌다. 가치론적인 욕구는 가치관을 말하며 사람들은 자신이 성취할 가치가 있다고 믿거나 가치있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호작용을 한다. 가치론적인 욕구는 자급(subsistence)에서 자유(freedom)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인 깨달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기본적인 욕구에서 점진적인 깨달음의 순서는 시간의 과정으로 발달되어 주체적 존재(agentive being)의 내적 특성이 실현되기 때문에 개인은 더 높은 수준의 만족감을 놓고 성장하게 된다.

자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강관리와 교육과 같은 삶의 조건들뿐만 아니라 육아 및 보살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배려와 돌봄도 필요하다. 자립은 생활을 위한 자립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자립을 포함하며 남성이나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격적 완성을 위한 자립의 달성도 포함된다. 생활의 자립은 스스로 생활과 의식주를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정신적 자립은 가족의 범위와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은 노동의 의미와 재화의 사용, 현재의 재정 상태를 포함해 노후 생활까지 대비할 수 있는 것이며, 성적 자립은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과 같은 비이성적인 대우부터 벗어나 이성적이고 동등한 성역할과 연애 관계 등을 형성해가는 자립에 해당한다.

우리의 자이는 본질적으로 관계적인 특성을 가지기 때문

에 사회적 관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한 인격은 사회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다(Christman, 2013). 자립은 개인이 환경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회적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 라. 변혁적 학습의 주체자와 자유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쌓는 학습과는 달리, 변혁적 학습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적 가정들을 근본적으로 재검열하게 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는 즉, 어떤 것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이르도록 한다. 변혁적 학습과 교육은 사회관계와 실천의 근본적인 재구성을 동반한다(Brookfield, 2003, p. 142).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이전에 가졌던 신념과 가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비롯된다. 변혁적 변화는 적극적이고 갑작스런 통찰에서 비롯될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의 생각과 자기 성찰 과정의 산물이 될 수도 있다(Cranton, 2002). McGregor(2006)는 전문인들이 비판적 성찰과 변혁적 행동에 참여함으로써 일반적인 방법과 관점을 뛰어넘어 진보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McGregor(2009)는 사회학습이론을 인용해 학습하는 동안 환경과 행동에서 인간행동을 결정하고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가 작동하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첫째, 생물학적 요인, 지식, 자기인식, 목표 및 태도와 같은 개인적 요인과 인지적 역량이다. 둘째, 지적, 정신적 기능,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실천에 대한 행동이다. 셋째, 사회적 규범, 지역사회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으로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관계를 인식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타인의 목적, 신념, 판단 및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석하는 법을 배워 나가는 것을 Mezirow(1997)는 변혁적 학습이라 하였으며 이것은 자유로운 사고를 발전시킨다고 강조하였다.

변혁적 학습은 진정한 개인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에서 깊이 있고 구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우리의 방식을 변화시키므로써 의식을 변화시키므로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위치에 대한 이해까지 포함한다(O'Sullivan, 2003). 사회적 맥락에서 변혁적인 학습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Mezirow(1997)는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학습과정에서 합리적인 추론과

민주적인 참여기술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며 반성적인 실천과 경험의 다양성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학습, 사회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다. 변혁적인 학습은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세계관을 구성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Mezirow(1995)는 이것을 ‘의미 있는 관점’의 변화로 본다.

이와 같이 변혁적인 학습과 교육은 자신의 힘을 찾기 위한 도구로 볼 수 있으며, 개인과 가족의 실천적 관심에 초점을 둔 가정과교육에서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변화에 대한 공유된 가치와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개인의 자유와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3. 임파워먼트(empowerment)

가정학 문헌에서 임파워먼트는 1990년대에 활발히 논의되었다. 우선 Vaines(1993)의 empowerment orientation은 직접적으로 임파워먼트 개념을 가정학 모델에 사용하였다. 이 모델에서 power란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며,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며, 함께 협력함으로써 미래를 형성하기 위하여 임파워먼트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정학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이 다른 모든 살아있는 시스템의 이익을 위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숙고함으로써 공공의 선 혹은 도덕적 비전이 공유되고 정의되는 것이다. Nickols와 Collier(2015)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안녕이라는 궁극적 목적과 함께 임파워먼트 접근은 가정학 실천을 지속시켜주었다고 하였다. Morgaine(1993)은 전문분야의 사명을 논할 때 임파워먼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실제로 가정학의 정체성과 명칭, 철학적 이론적 틀을 검토했던 미국의 Scottsdale Meeting에서 1993년 제창된 가정학의 새로운 “Conceptual Framework”는 “empowering individuals, strengthening families, enabling communities”를 슬로건으로 개인의 임파워먼트를 가정학의 목표로 보았다.

Power의 어원은 라틴어 potere로 “to be able”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가능성, 잠재력을 모두 포함한다. 임파워먼트는 어원적 의미에서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으며 앞서

논의한 웰빙, 자유, 자주와 상호 관련이 있다. Vincenti(1993)는 임파워먼트를 해방(emancipation)과 자유(freedom)를 연계하여 해석하였다. 해방은 지적, 도덕적, 정신적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우세한 물리적 힘이나 법적 의무에 의해 강요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임파워먼트는 자의적, 전제적, 독재적 방하나 행동에 대한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전제하며, 결합이나 불이익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Baldwin(1990)은 임파워먼트를 인간 웰빙을 위하여 자신의 요구와 사회의 본질, 이성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에 관한 비판적, 반사숙고적 통찰력을 통한 상호적, 발달적 과정으로 해석하였고, 인간의 자주성과 공론영역의 구축과 유지라는 두 연관된 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두 차원으로 사고와 행동에 관여하는 내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편견, 이성적 의사소통에 참여할 능력이 없는 것)와 사회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영역에 의해 부과되는 외부적 제약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Brown(1980)은 권력과 지배의 구조가 개인과 가족의 웰빙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Habermas(1984, 1987)가 현대사회에서 생활세계를 권력과 지배 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해야 한다는 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 Yoo, Ju와 Yang(2019)이 가정과교육의 미래 방향 모색에 Habermas의 비판이론을 근거한 배경이기도 하다. 개인과 가족이 생활세계의 합리화 과정을 의미 있게 유지하기 위해 비판이론에서 제시한 세 행동체계를 통한 임파워먼트를 자주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이, 임파워먼트와 웰빙, 자유, 자주의 가치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McGregor(1998)는 임파워먼트를 갖춘(empowered) 전문인은 자신과 학문분야, 가족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임파워먼트를 갖춘(empowered) 개인과 가족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가족이 임파워먼트를 갖추도록 할 수 없으며, 가족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없다. Brown과 Paolucci(1979)의 가정학의 사명진술문은 ‘enabling families to’라는 어구로 시작하여 ‘가정학의 사명은 가족으로 하여금 세 행동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제창하였다. 여기에서 enabling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empowering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므로 가정학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empowering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Morgaine(1993)은 개인과 가족의 임파워먼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을 인터뷰한 결과, 임파워먼트는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수 없고, 반드시 개인의 행동과 집단의 행동을 포함해야 하고, 독단적인 훈련이 아니며, 개인적 변화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대신에 임파워먼트 과정은 불의와 불평등한 권력을 지지하는 사회적 구조에 도전하고 변화하도록 설계된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맥을 같이하여 Magee, Yoo, Mok과 Washi(2010)는 개인 차원의 임파워먼트(individual empowerment) 뿐만 아니라 공동체 차원의 임파워먼트(collective empowerment)를 길러야 하며, 이는 가정과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하여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 Baldwin(1990)은 자유로운 인간과 자유로운 사회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family empowerment를 위한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 4.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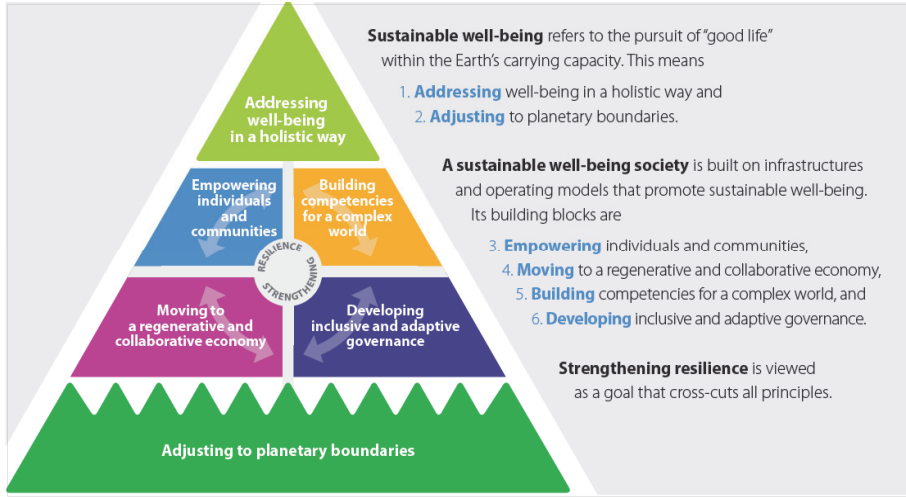
세계가정학회(IFHE)는 가정학의 모든 학문분야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는데 유기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학의 전문분야는 개인, 가족, 사회의 식품, 건강, 경제, 환경 등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을 위한 활동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성은 가정학 전반에 무엇보다 중요한 주제의 하나로 학문구조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가정학연합회(Alliance of FCS organizations)도 ‘Creating healthy and sustainable families’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슬로건은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가정학의 사명과 가치가 개인, 가족, 사회의 삶의 질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가정학에서 지속가능성은 인간 생활의 모든 맥락에 연관을 맺으며 지속적으로 추구되는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은 사회의 부정적인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강조하지만 현재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인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웰빙을 더 강조한다(Suomen Itsenaisyden Juhlarahasto[SITRA], 2013). 이러한 지속가능성

은 기존의 전통적인 구조와 과정보다는 학문의 통합과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가르쳐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은 공유된 정신적인 체계, 가치관, 행동규범이 바뀌는 집단적 학습과정에 달려있다(SITRA, 2013). 지속가능성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핀란드 가정과 교육과정의 사례를 살펴보면 삶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법에 대한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을 교육의 가치로 삼고 있다. 또한 학습의 필수조건으로 웰빙(well-being)과 안전(safety)을 들고 있으며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태도를 갖추도록 하여 학습자의 성장을 돕고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행동하도록 한다. 핀란드 가정교육과 과업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준비성을 개발하고 웰빙을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생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이러한 교육을 통해 가정 내 일상생활에서 환경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태도를 배우고, 지속가능한 선택에서부터 지속가능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촉진하여 적극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민간 및 공공 부문 문제를 중심으로 복지문제를 다루는 핀란드의 경우 웰빙은 시민사회에서 개인적, 사회적 웰빙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지어 사회적 관계, 협력적 준비, 개인과 사회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Hellstrom 외(2015, p. 4)는 <Figure 6>에서 지속가능한 생활의 이동을 나타내고 있다. 지속가능한 웰빙은 지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범위 내에서 ‘good life’를 추구하는 것을 가리키며, 지속가능한 웰빙 사회는 지속가능한 웰빙을 촉진시키는 기반 구조와 운영 모델에 기초하여 구축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웰빙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6가지 원칙은 ‘웰빙을 총체적인 방식으로 다룬다.’, ‘지구한계선(planetary boundaries)에 적응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재생과 협업의 경제로 전환한다.’, ‘복잡한 세상을 위한 역량을 구축한다.’, ‘포괄적이고 최적화된 관리를 한다.’이다. Hellstrom 외(2015)는 이 원리들을 이행하면 사회의 탄력성, 즉 갑작스러운 변화를 새로운 학습과 힘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고 보았다.

오늘날 지속가능성 문제에 대한 도전에서 “다른 이들의 목적, 신념, 판단,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 보다는 자주적인 사



Source: Hellstrom et al. (2015, p. 4)

Figure 6. Toward a positive cycle of change

고를 전개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Seatter & Ceulemans, 2017, p. 55).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 있는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변화는 보다 계몽된 의사결정에서 오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의 학습은 편견, 신념에 대한 자기 검토 과정을 통한 비판적이며 변혁적인 사고와 학습을 포함하게 된다. 전문분야로서 가정과교육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인적, 사회적 웰빙의 가치를 위한 변화와 행동을 실천해나갈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다루기 위한 가정교육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 IV.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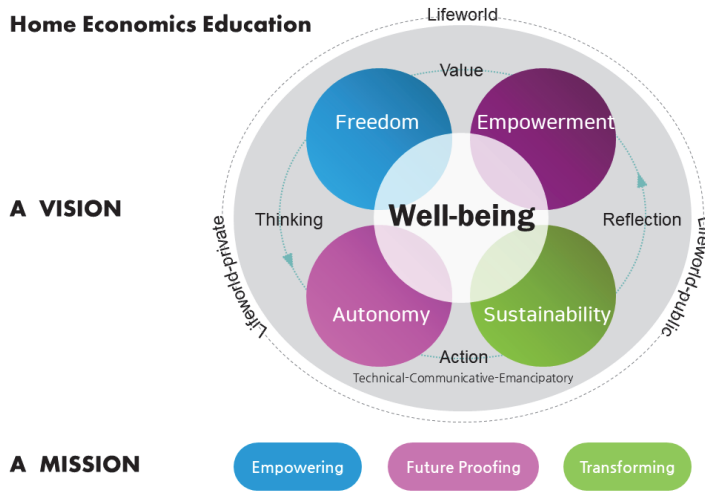
##### 1.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 진술문

비전과 사명은 분리하여 개념화하기 보다는 지향성과 실천이라는 두 측면을 통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전과 사명의 실천가능성을 높인다고 판단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지향하는 궁극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명은 비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실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아래의 비전과 사명 진술문은 개인과 가족, 가정과 교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교사교육자의 세 주체가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데 요청되는 역할을 중심으로 진술되었다.

비전과 사명 진술문에 제시된 행동 주체와 변혁적 주체의 의미는 앞서 가정과교육의 지향하는 가치에서 논의된 바 있다. “Future proofing the profession” 역할에서 future proofing은 세계 가정학회(IFHE, 2008, p. 2)에서 “anticipating future developments to minimize negative impacts and optimize opportunities”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의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진술문에서의 “future proofing the profession”은 ‘미래사회의 조건과 영향을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최선의 상황으로 변혁시킬 수 있도록 미래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함’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미래 사회를 형성해 나가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전문성, 도덕성, 실천능력)을 갖추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신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형식상으로는 세 주체별로 역할이 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역할이 개인과 가족, 가정과 교사와 학생,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교사교육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가정과교육 공동체의 공통된 역할을 의미한다.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

- **개인과 가족**은 생활세계에서 안녕, 자유, 임파워먼트,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가치, 사고, 판단, 행동에 기반한 기술적-의사소통적-해방적 실천을 통하여 인간과 사회의 조건을 변혁해 나갈 수 있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와 역량을 길러 자유로운 인간, 가족, 사회 및 지속가능한 환경을 옹호하고 이루어 가는 **행동 주체** 역할을 다할 것이다.
- **가정과 교사**로서 임파워먼트와 실천적 지혜, 변혁적 역량을 함양하여 학생과 가족이 가정과교육의 가치와 목표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옹호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변혁적 주체** 역할을 다할 것이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교사교육자**는 개인과 가족, 사회, 학회 회원이 미래를 이끌어 가도록 “Future Proofing the Profession”의 **리더 역할**을 다할 것이다.

Figure 7. A model of a vision and a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2.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 모델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진술문으로부터 가정과교육의 상징성을 함축하여 <Figure 7>의 모델로 나타내었다. 가정과교육의 비전(vision)은 세 요소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작용한다.

첫째, 가정과교육의 장(field)인 생활세계를 바깥 원에 배치하였다.

둘째,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 모티브를 중앙에 위치

하였다.

셋째, 가정과교육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가치 모티브를 엮는 테두리로 나타내었다.

세 요소를 동시에 반영하여 가정과교육의 비전을 해석하면, 가정과교육의 비전은 개인과 가족이 생활세계(lifeworld)의 사적영역(lifeworld-private sphere)과 공론영역(lifeworld-public sphere)에서 사고(thinking)와 성찰(reflection) 및 세 행동체계(action: technical, communicative, emancipatory action)의 실천을 통하여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value: well-being, freedom

& autonomy, empowerment, sustainability)를 실현시키는 지향성을 보여준다.

생활세계의 사적영역은 개인과 가정생활 영역으로, 가정과교육은 개인을 위한 실천으로 개인의 임파워먼트(individual empowerment)를 강화하는 것과 가정을 위한 실천으로 가족의 임파워먼트(family empowerment)를 강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가정교육학은 공론영역에서의 의사소통, 합의, 공공의 변혁적 행동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인간의 조건과 사회의 조건(sustainable human-societal condition)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지향한다. <Figure 7>에서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생활세계와 체계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여 사회와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을 자각하고 개인의 자주성과 안녕, 복지 증진을 지향한다.

가정과교육의 사명(mission)은 다음의 세 요소를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첫째, 가정과교육의 세 주체

둘째, 가정과교육의 대상

셋째, 가정과교육 전문직의 임무와 실현 방법

이를 반영하여 가정과교육의 사명을 해석하면, 가정과교육의 사명은 개인과 가족, 가정과 교사, 학회와 교사교육자의 세 주체 스스로와 그들이 전문활동의 대상(초·중등학교 학생과 가족, 학회 회원, 예비 가정과 교사 및 대학원생)이 임파워먼트를 갖추도록 하고(empowering), 미래에 준비되며(future proofing), 변혁적 주체가 되는 역량을 기르도록(transforming) 전문직으로서의 임무를 지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 3.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의 실현

제안된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과교육 주체 간의 체계적이며 협력적인 실천이 지속적으로 따라야 한다. <Figure 8>은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진술문에 제시된 세 주체인 개인과 가족, 가정과 교사, 학회와 교사교육자가 세 행동체계에서의 실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을 통한 실천, 교사역량 함양을 통해 자유로운 인간, 자유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을 이루도록 비전과 사명의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



Figure 8. Strategies for achieving a vision and a miss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 가. 세 행동체계에서의 실천

Baldwin(1996)은 개인과 가족의 세 행동체계에서 기술적 행동, 의사소통적 행동, 비판적(해방적) 행동을 통해 웰빙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Brown(1984)은 가정과교육이 기술적 패러다임에 중점을 두고 의사소통 패러다임과 비판적 패러다임을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역사적 유산을 비판하였다. Brown(1984)의 가정학 역사에 대한 자아성찰적 비판의 역사적 유산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지닌다면, Baldwin(1996)이 주장한 세 행동체계를 통해 웰빙은 이룰 수 없게 될 것이다. Yang(2016)은 가정과교육을 통해 이루게 될 인간상을 “생활세계에서 기술적, 의사소통적, 해방적 행동영역에서 자주적으로 행동해 나가는 사람”으로 상정한 바 있다. 가정과 교육과정과 가정과 수업, 가정과교육의 연구를 통하여 개인과 가족이 세 행동체계를 모두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 나. 실천적 추론과정의 활용

본 연구에서 제안한 <Figure 7>의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 모델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세계의 사적영역과 공론영역에서 어떤 가치를 지향할 것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생활세계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과정 능력을 길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능력은 자연적으로 길러진다기보다는 가정과 교육을 통하여 실제 생활에서 직면하는 실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천적 추론과정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임파워먼트를 기를 수 있다. Baldwin(1990)은 가정과교육에서 지속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가족과 사회 이슈에 대한 반사숙고적, 비판적 대화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주성 개발에 기여할 수 있고 개인과 가족을 웰빙을 위하여 사회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행동하는 자주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보아야함을 주장하였다. 실천적 문제 중심 교육과정과 실천적 추론 수업은 구조적으로 가정과교사들이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사고력, 판단력, 실천 의지와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비전과 사명의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 다. 교사역량의 함양

Yoo(2018)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가진 가정과 교사의 상을 ‘future proofed teacher’로 제시한 바 있는데, ① 탐구자로서의 교사, ② 임파워먼트를 길러가는 교사, ③ 실천적 지혜를 길러가는 교사, ④ 행동 주체-변혁의 주체로서의 교사이다. 이는 교사역량의 요소로 항상 제안되는 전문성, 도덕성, 역량, 실천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요구한다. Pendergast(2015)의 Home Economics Literacy Model에서와 같이 개인과 가족의 근본적 요구와 실천적 관심사, 지식과 기능의 다학문적 통합,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변혁적 행동의 필수적 차원에서 가정학 리더십을 함양하는 것이 학생이 미래에 준비된(future ready), 학생 주체(student agent)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상의 세 측면에서의 실현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가정과교육을 통해 기르게 되는 개인적·공동체적 임파워먼트는 개인과 가족의 웰빙과 자유에 기여하고, 사회변혁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신 할 수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회고와 전망이라는 두 주제를 다루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30년 역사의 성과를 가정과교육의 현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학술대회 및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의 주제, 가정과 교사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되돌아보았다. 전국 대학의 가정교육과 및 교수의 수가 줄었지만 가정과교육을 전공한 교수들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가정과 교육과정의 경우 변화하는 가정생활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차원적으로 변화해 왔다. 학술대회 주제를 살펴본 결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사회적 현안과 관련된 주제를 발굴하고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제고하여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국 각 시도 가정과연구회의 경우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관련 수업 개발을 논의하고 있어 가정학이 사회에 봉사하는 학문인 전문분야로 학문 밖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지난 30년 역사를 통해 본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와 가정과 교사의 수업은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바를 발견하였다.

둘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가정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웰빙, 자유와 자주 및 자립, 임파워먼트, 지속가능성으로 제시하였다. 가정과교육의 미래 비전과 사명을 개인과 가족, 가정과교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와 교사교육자 입장에서 제안하였다. Brown과 Paolucci(1979)는 *Home Economics: A Definition*에서 가정학의 the definition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a definition을 제시한 것이므로 가정학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가정학의 정의에 대해 논의하기를 추구하였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는 가정과교육의 the vision, mission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a vision, mission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시작에 불과하므로, 가정과교육 공동체 각 주체는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작업과 노력이 계속될 때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은 실현될 것이다. 본 연구로부터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의 실현은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 사회, 환경의 총체적 웰빙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은 미래 사회에 더욱 지대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가정교육의 비전과 사명은 3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진술이 시도된 만큼 그 의미는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미래 가정교육을 위한 구성원의 기여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한 관련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제한적인 철학적 문헌자료에 기초하였다. 이에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정교하게 가정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를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전과 사명진술문에 포함된 철학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개념화하며, 이에 대한 가정교육 공동체의 논의를 통하여 수정·보완하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이성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요청된다.

### 참고문헌

- Alkire, S. (2002). Dimensions of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30, 181-205.
-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1959). *New direction: A statement of philosophy and objectives*. Washington, DC: The Author.
- Arendt, H. (2017). *The human condition*. (W. J. Lee, Trans.). Paju: Hangilsa. (Original work published 1958).
- Baldwin, E. E. (1990). Family empowerment as a focus for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Vocational Home Economics Education*, 8(2), 1-12.
- Baldwin, E. E. (1996). Family well-being: A conceptualization guide to professional practice. In D. Mitsifer (Ed.), *Toward a theory of family well-being I* (pp. 3-11). East Lansing, MI: Kappa Omicron Nu.
- Banner, J. M., & Cannon, H. C. (1997). *The elements of teaching*.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Berlin, I. (2002). Two concepts of liberty. In H. Hardy (Ed.), *Four essays on liberty* (pp. 118-172). Oxford, England: Oxford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Brookfield, S. (2003). Putting the critical back in critical pedagogy: A commentary on the path of diss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1(2), 141-149.
- Brown, M. M. (1980). *What is home economics education?* Minneapolis, MN: Department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Minnesota University.
- Brown, M. M. (1984). Home economics: Proud past-promising future, 1984 AHEA commemorative lecture. *Journal of Home Economics*, 76(4), 48-54.
- Brown, M. M. (1985).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Our practical intellectual heritage I*.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for Vocational Education.
- Brown, M. M. (1993). *Philosophical studies of home economics in the United States: Basic ideas by which home economists understand themselves*. East Lansing, MI: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College of Human Ecology.
- Brown, M. M., & Paolucci, B. (1979). *Home economics: A definition*. Alexandria, VA: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Chae, J. H., Lee, S. H., & Yoo, T. M. (2010). Social contribution and future direc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2(4), 139-154.
- Cho, J.-S., Jun, M.-K., & Lee, Y.-J. (2009). The 20 years' activities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21(3),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177-193.
- Chown, A. A. (1902). Effect of some social changes on family. Lake Placid Conference on Home Economics. *Proceedings of the Fourth Annual Meeting*, 31-35.
- Christman, J. (2013). Freedom, autonomy, and social selves. In B. Baum & R. Nichols (Eds.), *Isaiah Berlin and the politics of freedom: Two concepts of liberty 50 Years later* (pp. 87-101). New York: Routledge.
- Cranon, P. (2002). Teaching for transformation.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93, 63-72. doi:10.1002/ace.50
- Dimova-Cookson, M. (2013). Defending Isaiah Berlin's distinctions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freedoms. In B. Baum & R. Nichols (Eds.), *Isaiah Berlin and the politics of freedom: Two Concepts of Liberty 50 Years later* (pp. 73-86). New York: Routledge.
- East, M. (1980). *Home economics-past, present, and future*. Boston, MA: Allyn and Bacon, INC.

- Feinberg, J. (1986). *Philosophy of law*.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2016).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14*. Helsinki: National Board of Education.
- Habermas, J. (1984).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Reason and rationalization of society I*. (T. A.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abermas, J. (1987).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Lifeworld and system: A critique of functionalist reason II*. (T. A. McCarthy, Trans.). Boston, MA: Beacon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81).
- Hellstrom, E., Hamalainen, T., Lahti, VM., Cook, J. W., & Jousilahti, J. (2015). *Towards a sustainable well-being society from principles to applications*. Helsinki: The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 Huitt, W. (2007). *Maslow's hierarchy of needs. Educational psychology interactive*. Valdosta, GA: Valdosta State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www.edpsycinteractive.org/topics/regs/maslow.html>
-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ome Economics (IFHE). (2008). *IFHE position statement 2008: Home economics in the 21st century*. Bonn: IFHE.
- Jaspers, K. (1973). *Philosophie: Band. II: Existenzerhellung* (4th ed.). Heidelberg: Springer. (Original work published 1956).
- Kang, J. M., & Yu, N. S. (2018). Development of technology-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s using ARCS strategies to improve character for middle school student: Focusing on the unit of 'understanding famili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1), 29-42. doi:10.19031/jkheea.2018.03.30.1.29
- Kim, N. E., Chae, J. H., & Cho, J. S. (2016). Development of 'the safety' theme-based integrat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the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instruc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1), 19-39. doi:10.19031/jkheea.2016.03.28.1.19
- Kim, S. C. (2007).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processes in the cooperative learning association of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 King, P. (2007). *The concept of well-being and its application in a study of aging in Aotearoa New Zealand*. Retrieved from <http://www.ewas.net.nz/Publications/filesEWAS/Conceptualising%20wellbeing.pdf>
- Laceulle, H. (2018). *Aging and self-realization: Cultural narratives about later life*. London: Transcript Verlag.
- Laster, J. F. (2008). Nurturing critical literacy through practical problem solving.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of Home Economics Education*, 50(4), 1-12. doi:10.11549/jjahee.50.4\_261
- Lee, C. S. (2019). *현행 교육과정의 비판적 검토와 미래 교육과정의 혁신 방향* [A critical review of the current curriculum and the direction of innovation in the future curriculum]. Paper presented at 2019 National Curriculum Forums, Future Education Forums, Daegu.
- Lee, Y. S., Chae, J.-H., Yoo, T. M., Wang, S. S., Lee, E. H., Yu, N. S.,...Yoo, S. J. (2013).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s and materials for charact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home economics classe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3), 39-60.
- Magee, M., Yoo, T. M., Mok, C. J., & Washi, S. (2010). Collective empowerment of the home economics profession: Equipping the profession with advocacy, futures creation and leader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Home Economics*, 3(1), 38-52.
- Marshall, V., McMullin, J., Ballantyne, P., Daciuk, J., & Wigdor, B. (1995). *Contributions to independence over the adult life course*. Toronto, ON: Centre for Studies of Aging, University of Toronto.
- Maslow, A. H. (196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Wiley and Sons.
- Maslow, A. H. (1971). *The farther reaches of human nature*. New York: Harper.
- Maslow, A. H., & Lowery, R. (Eds.). (1998).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3rd ed.). New York: Wiley and Sons.
- Max-Neef, M. A. (1991). *Human scale development*. New York: The Apex Press. Retrieved from [http://www.dhf.uu.se/pdf/filer/89\\_1.pdf](http://www.dhf.uu.se/pdf/filer/89_1.pdf)
- McGregor, S. L. T. (1998). Embracing a new future: A leadership imperative. *Journal of Home Economics*, 89(3), 12-18.
- McGregor, S. L. T. (2006). *Transformative practice*. East Lansing,

- MI: Kappa Omicron Nu.
- McGregor, S. L. T. (2008). Future proofing: Transdisciplinary ambassadors for the human cond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me Economics*, 1(1), 25-31.
- McGregor, S. L. T. (2009). Reorienting consumer education using social learning theory: Sustainable development via an authentic consumer pedago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33(2), 258-266.
- McGregor, S. L. T. (2010). *Well-being, wellness and basic human needs in home economics* (McGregor Monograph Series No. 201003). Seabright: McGregor Consulting Group.
- McGregor, S. L. T., & Goldsmith, E. B. (1998). Expanding our understanding of quality of life, standard of living, and well-being.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90(2), 2-6.
- Meyers, D. (1989). *Self, society and pers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ezirow, J. (1995). Transformation theory of adult learning. In M. Welton (Ed.), *In defense of the lifeworld* (pp. 39-70).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ezirow, J. (1997). Transformative learning: Theory to practice. *New Directions for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74, 5-12.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7). *The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09). *The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oul: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practical Arts(technology & home economics) Curriculum*. Sejong: Author.
- Ministry of Education. (2018).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ractical handbook for teacher qualification verification in 2018]*.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orgaine, C. A. (1993). A language of empowerment. *Forum*, 6(2), 15-20.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Administrators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NASAFCS). (2018). *National standards overview*. Retrieved from <http://www.nasafacs.org/national-standard-s-overview.html>
- Nieboer, A., Lindenberg, S., Boomsma, A., & Van Bruggen, A. (2005). Dimensions of wellbeing and their measurement. *Social Indicator Research*, 73(3), 313-353.
- Nickols, S. Y., & Collier, B. J. (2015). Knowledge, mission, practice: The enduring legacy of Home Economics. In S. Y. Nickols & G. Kay (Eds.), *Remaking Home Economics: Resourcefulness and innovation in changing times* (pp. 11-35). Athens, GA: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Nickols, S. Y., Ralston, P. A., Anderson, C., Browne, L., Schroeder, G., Thomas, S., & Wild, P. (2009). The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body of knowledge and the cultural kaleidoscope: Researc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Research Journal*, 37(3), 266-283.
- O'Sullivan, E. (2003). Bringing a perspective of transformative learning to globalized consum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27(4), 326-330.
- Paek, M. K., & Cho, J. S. (2015).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the practice of caring and sharing: Focusing on 'happy family life and culture led by family' unit of high school technology-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7(4), 19-35. doi:10.19031/jkheea.2015.12.27.4.19
- Palmer, P. J. (1998). *Courage to teach: Exploring the inner landscape of a teacher's life*. (J. I. Lee, & E. J. Lee, Trans.).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
- Park, D. O., & Yu, N. S. (2018). Development of teaching-learning plans applying character education components and STAD cooperative learning strategy focusing on 'Housing and residential environment' unit of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3), 91-109. doi:10.19031/jkheea.2018.09.30.3.91
- Park, M. J. (2006). *A study on development strategies for the future Home Economics education: focusing on identity, empowerment, and 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Park, M. J. (2012). The development teaching models for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in Home Economics education-focusing on the unit 'clothing and self-expression'. *Journal*

-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4(3), 35-56.
- Pendergast, D. (2015). HELM-home economics literacy model: A vision for the field. *Victorian of Home Economics*, 54(1), 2-6.
- Rogers, D. L., & Babinski, L. M. (2003).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 - 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B. K. Jo, E. J. Baek, & Y. M. Ko, Trans.).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2).
- Ryff, C. D. (1995).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 life.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4), 99-104.
- Seatter, C. S., & Ceulemans, K. (2017). Teaching sustainability in higher education: Pedagogical styles that make a difference. *Canadi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7(2), 47-70.
- Sen, A. (1999). *Development as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E. M., & Cho, J. S. (2017). Practical problem-base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to develop and apply to enhance safety awareness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1), 15-33. doi:10.19031/jkheea.2017.03.29.1.15
- Son, J. Y., & Chae J. H. (2013). Th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n middle school: Based on the practical action teaching model.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5(2), 103-128.
- Suomen Itsenäisyyden Juhlarahasto. (2013). *Towards a sustainable well-being society: Building blocks for a new socioeconomic model*. Helsinki: The Finnish Innovation Fund Sitra.
- Talbott, W. J. (2005). *Which rights should be univers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albott, W. J. (2010). *Human rights and human well-be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urkki, K., & Vincenti, V. B. (2008). Celebrating the past: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history of IFHE and home economics profes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ome Economics*, 1(2), 75-97.
- Vaines, E. (1993). An empowerment orientation for home economics. *Forum*, 6(2), 21-25.
- Venhoven, R. (2004). *Subjective measures of well-being*. WIDER: United Nations University.
- Vincenti, V. B. (1989). History as an interpretive mode of inquiry for home economics. In F. H. Hultgren & D. L. Coomer (Eds.), *Alternative modes of inquiry in home economics* (pp. 80-94). Peoria, IL: Glencoe.
- Vincenti, V. B. (1993). Empowerment: Its history and meaning. *Forum*, 6(2), 21-25.
- Yang, J. S. (2016). *The ideal portrait of human being pursu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from a critical science perspectiv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Gyou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 Yoo, T. M. (2018). Teacher competency and accountability of home economics teacher which will lead home economics for a future society. *Proceedings of the 2018 Jun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Conference*, 1, 9-31.
- Yoo, T. M., Ju, S. U., & Yang, J. S. (2019). Direction of praxi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for the transformation of future society drawn from the Habermas's critical theor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1), 169-192. doi:10.19031/jkheea.2019.03.3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성찰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첫째, 30년 역사의 성과를 가정과교육의 현황, 한국가정과교육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와 가정과 교사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되돌아보았다. 지난 30년 역사를 통해 본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와 가정과교사의 수업은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제고하여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미래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발전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을 도출하였다. 비전과 사명의 공유는 전문분야로서 가정과교육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와 목표로 기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과정으로 이끌어준다. 본 연구로부터 가정과교육의 비전과 사명의 실현은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사회, 지속가능한 환경으로 이끌 것이며, 궁극적으로 개인과 가족, 사회, 환경의 총체적 웰빙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은 미래 사회에 더욱 지대해질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11월 27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2월 28일